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 (1)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 (2) 한 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쁘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 (3)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 (4)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291장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 (1)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 (2)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은 이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네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 (3)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네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 후렴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네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3월 4일(목) 기도 담당 : 전병천 집사

2021년 3월 3일(수)

이른아침예배

인도 : 윤지옥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20장
기도	서동원 집사
성경봉독	시편 73편 13~23절
설교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시는 은혜”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찬송	291장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 시73:13~23 >

- 13)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 14)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 15)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 16)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 17)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 18)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 19)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 20)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 21)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찢렸나이다
- 22)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 23)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 1)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 2)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 3)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 28)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1년 3월 3일(수)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 수요일 이른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른아침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인(印) 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평등과 공정과 정의로운 삶을 실현하고자 애쓰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불평등(不平等), 불공정(不公正), 불의(不義)가 만연함을 경험합니다.
구조악(構造惡)은 더욱 견고해지며, 부패는 총체화(總體化)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의인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도리어 형통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것이 공허하고 회의감(懷疑感)마저 들기도 하고,
좌절과 상실, 패배감에 사로잡히기도 하며, 때로는 악인들의 형통이 부럽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 위로와 평안,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의 섭리는 지금 이 순간도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행위에 따른 공의의 심판을 시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확신하며
내 손을 붙들어 주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신앙적 갈등과 위기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해결 받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오직 예수! 더욱 사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